2019. 2. 12. (화) 언론보도



2019년 02월 11일 (월) 인천/경기

경기도, DMZ내 '국제평화역' 추진...정부에 제 안하기로



[앵커]

경기도가 비무장지대에 가칭 국제평화역을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남북을 절도로 오가게 될 때, 이곳을 통해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자는 건데요. 경기도는 정부에 이 같은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남북 철도 연결 사업이 완료되면, 열차를 타고 북한은 물론 중국이나 러시아로 이동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남쪽의 도라산역을 지나 비무장지대를 거쳐 북쪽의 판문역에 들어서게 되는데 그 거리는 불과 6.7km 입니다.

출국 심사를 받은 뒤 짧은 구간을 이동해 또 다시 입국 심사를 받게 되는 번거로운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경기도는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 비무장지대 지역에 가칭 '국제평화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평화역에서 출입국 절차를 통시에 해결해 남북 열차 여행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홍지선/경기도 철도국장 : "남북 철도 면결을 대비하고 DMZ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남북국 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경기연구원과 함께 마련해 중앙정부에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국제평화역에 면세점과 남북한 맛집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주변 비무장지대를 관광할 수 있는 여행 상품 개발도 연계 추진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방안을 조만간 국토교통부와 통일부에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으로 예산 규모와 재원 조달 방법 등은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

경기도, DMZ 내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앵커]

남북 간 경의선 등 절도 연결 사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경기도가 비무장지대에 남북 평화를 상징하는 역사를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기차가 절로 위를 시원스레 달라며 북으로 향합니다.

남북 평화 무드를 타고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남북 절도 연결 사업.

경기도가 이에 발맞춰 비무장지대, DMZ에 일명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추진합니다.

남과 북을 잇는 경의선 도라산역과 판문역 사이에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는 랜드마 크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홍지선 / 경기도청 철도국장 : 국제평화역은 DMZ가 남북 대치의 공간에서 평화적 활용으로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남북 국제평화역'은 단순한 역사 개념을 넘어 통합 출입국심사소, CIQ 역할을 수행할 예정 입니다.

통합 CIQ가 설치되면 지금 남과 북에서 각각 실시해 모두 4시간여가 걸리는 입국 심사를 원스통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장소는 DMZ 내 설치해 남과 북 땅을 각각 절반씩 쓰고 직원도 양측이 모두 파견합니다.

[박경철 / 경기연구원 연구기획부장 : 국제평화역은 DMZ 내 남북한 공동관할 지역에서 남 북 심사관이 함께 근무하는 형태입니다.]

경기도는 '남북 국제평화역'에 면세점과 남북한 맛집 동도 조성할 계획이라며, 경기북부 발 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스탠딩]

경기도는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정부에 제안해 남북 협력 사업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 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염상취제: 조설범 / 염상편집:장상진>

경기도, DMZ에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 [사진 출처 = 경기도]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발맞춰 DMZ 내 '(가칭)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추진하기 로 했다.

흥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에 선제적으로 대용하고, 경기 북부 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적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한으로 이동할 시 남측과 북축 출입사무소에서 각각 수 속절차를 밟아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현재 경의선 철도로 북측으로 가려면 남측의 도라산역에 정차해 세관검사, 출입국관리, 검 역 등의 수속 절차를 밟은 뒤 6.8km 떨어진 북측 판문역에서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해 출입국 심사에만 총 4시간 정도 걸린다.

그러나 DMZ 내 남북 국제평화역이 지어지면 이용객은 남북 심사관이 공동 진행하는 수속 절차를 한 번만 받으면 돼 2시간 이내에 수속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경기도는 또 철도 이용객에게 면세점, 남북한 맛집 및 특산품 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남북 국제평화역이 남북 분단과 대치의 공간인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소외된 경기 북부를 활성화하는 새로운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흥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남북교류 협력에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라는 지역 적 특성을 고려

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만'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디지털뉴스국 노경민 인턴기자]



[경기] DMZ 내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경기도는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에 맞춰 DMZ에 가칭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남북 청도사업이 끝나면 현재 남측과 북측에서 각각 출입국 심사를 받는 불편을 덜기 위해 남북한 통합 출입국심사 기능을 갖춘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곳에서는 또 이용객에게 면세점과 남북한 맛집, 특산품 판매장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부근 DMZ 관광상품과의 연계도 추진하게 됩니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했습니다.

김학무 [mookim@ytn.co.kr]

노컷뉴스

[수도권 주요 뉴스] 경기도, DMZ내 국제평화 역 추진…남북통합 출입국 관리

[CBS노켓뉴스 고대한 기자]◇경기도, DMZ내 국제평화역 추천…남복통합 출입국 관리

경기도는 정부의 남북 철도사업 추진과 관련해 DMZ 내에 가장 '남북 국제평화적' 설치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국제평화역이 선설되면 기존 2회였던 졸업국십사가 1회로 줄어들게 되며, 이용적은 면세점과 남북한 맛집, 특산품 매장 등 편의사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도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면 독일 배를린 장벽 해체처럼 남북평화의 역사적 상징을로 각 인 월 것이라고 설명하고, 남복 국제평화역 설치 방안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경기소방 작년 47초꼴 구급차 출동...7월 50대 고혈압 많이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47초에 한 번골로 119구급차가 출동했고, 용급수송은 고혈압 환자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필표한 2018년도 구금활동 문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구급 출동 건수는 67만6,764건, 이송건수는 42만4,774건, 이송인원은 43만3,772명으로 접계됐습니다.

소방서별로는 수원소방서가 6만5,107권으로 가장 많은 줄동 건수를 기록했고, 부천소방서 와 용인소방서, 안산소방서 등이 위를 예었습니다.

월별로는 7월과 8월, 12월, 1월 순으로 나타나 여름철 목염과 겨울털 낙상 환자에 대한 구급 품동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본색됐습니다.

○인천시 공용추택관리규약 준칙 개정...간접흡연 피해 밝지 명운화

인천시가 간접론인 피체를 방지하고 입찰 관련 입주자의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당은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오늘부터 시행합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공통주택 세대 내 흥연으로 인한 이웃 피해를 막고 어와 관련된 분쟁 해결 절차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에 미탈되도 입절 방법에 대해 전체 업주자의 의견을 수 렴한 뒤 업제를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청 준칙은 공봉주택 관련 면원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관리규약 32개 조문을 정리하고 6개 조문을 선설했다고 인천시는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 단원고 학생 250명, 3년반에 명예졸업

2014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 250명이 3년 만에 명예 졸업하게 됐습니다

안산단왕고는 내일 오전 10시 본관 4중 단원관에서 '노런 고래의 꿈으로 돌아온 우리 아이들의 명에 졸업식'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명예 졸업식은 2014년 4월16일 제주도로 수작여행을 가던 당시 2학년 학생 325명 중 세월호 점물사고로 희생당한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졸업식은 항상 및 주모 동영상 상영과 명에 졸업장 수며, 졸업생 편지낭독 등의 순서로 진 형되며, 유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낚시어선 불법령위 항공기까지 동원해 단속한다

해양경찰청이 때년 이용적이 높고 있는 남시애선의 불입행위를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 형나다

해정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월 1~2차례 구명조끼 미착용 등 낚시어선의 불법 행위에 대해 합동 단속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구명조기 마작용과 승선인을 조과, 영업구역 위반, 위치 발신 장치 마작동, 승 게 신분 미확인 등이며 해경은 경비합과과 항공기를 동원한 입체적인 단속을 별일 예정일 나다.

○고양 패기를 처리시설 화재 2시간 30분 만에 진화

오늘 오전 7시50분등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성적동의 한 패기를 재활용시설에서 불이 나 2시간 30분만에 전화됐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직후 시설 안에 있던 직원들은 곧바로 대파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 안, 소방 당국은 폐기를 당이 많아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는 한편,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100-

- ★ 노컷뉴스 구독하면 경품이 우수수
- ★★ 경품 LG그램, 결노트, 아이패드, 항공권, LG유리케어, 다이슨

th0472@cbs.co.kr



경기도, 전국 최초 DMZ내 '남북통합역' 설치 추진한다

국제령화역 설치 용해 준입국 신사 시간 대혹 단독 면세점과 독선용 때장 설치 도. 설치 비참 2백약 원 추정... 형우대 설치 방안 패만



(현거) 케나다의 러시틱센트발역과 발가에의 브뤼날이디어역 등 유럽 국경에 날치돼 연합 국가간 출합국 심사를 공항으로 진행하는 국가 통합역이 국내 최초로 관기도에 설치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정무의 남북철도 단말 사업에 영합된 남북 출합객인 '국제철화약' 용지를 추진다 기표 했습니다

보호에 서술택 기자합니다.

[간호트] 국내 최조로 남쪽한 용반적이 경기보에 만들어를 지 추목됩니다.

통지선 경기도 필도국장은 도착에서 보려졌을 열고 "정부의 날짜질도 현대화사업에 벌맞춰 날씨 "국제원회역" 설치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남북철도 철도가 정상화의 장의선물 통해 불목으로 여용할 경우 남목 도라선 역과 복 후 판원역에서 각각 정치에 두 지래 출입국 심사를 거예야 하기 때문에 성당한 시간이 소요 될 것으로 매목했습니다.

이에 따라 있는 남북 통접역인 국제를봤역을 설치해 중앙국 신사 과정을 일점화한다는 계 확입니다.

국제평화적이 설치되면 도라산작과 단응적 승간에 위치해 통합적으로 클립국 관리와 세관 검사 등이 미뤄져 출입국 상사에 대한 사간이 대욱 단축을 것으로 제상됩니다.

유럽에서는 캐나다의 과시적선유물적과 벨기에의 보유별미디어의 동연서 이의 국제 동합적 이 온연 중으로 구내에선 경기로가 회호합니다.

용자선 경기도 철도국장입니다. (녹취) "현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쪽으로 여동할 경우 2 된 철자해 즐겁하십시를 거쳐대하므로 이용제용의 법은 물건이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인 습니다. 경기도가 제안하는 가한 납투국제형화역은 출입국심사를 1회 통합실시할에 따라 통관 소요시간이 작가적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제평화목에는 면생람과 확신을 대장, 남북한의 맛집 등을 입점시키겠다는 구상도 내놓았 습니다.

OMZ 장찰 성품은 연계적 남북 온라는 대자의 성립이었던 DMZ를 결화의 공간으로 털바로 시키겠다는 뜻의 전했습니다.

(녹취) "또한 이용적에게 면서장, 남북한 맛집 및 통신용 제장 등 편의사성을 제공하고 주변 DNZ 상존과 전계시 국제평화역은 DNZ가 남북 대치의 공간에서 명화적 활동으로의 출발 절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한편 경기로는 국제명화역 불차에 2배의 한 이상이 비용이 를 짓으로 추정하고, 정부가 남 혹 국제명화역을 불차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KFM 경기당송 서송책입니다.

남북 공동관리 '국제평화역' 경기도, DMZ에 설치 추진

도라신역 판단역 출입국심사 등 1회로 단축-통합CXQ 역할 기대

경기도가 경의선 철도의 남측 도 라산역과 복촉 판문역 사이인 비무 장지대(DMZ) 내여 남북이 공동관 리하는 통한CIO '남분 국제평화역 (가칭) '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 다. CIQ는 국가 간 이동을 할 때 반 트시 거쳐야하는 3대 수속, 즉세관 검사(Customs), 출입국관리(Imm igration), 검역(Quarantine)을 의미한다.

홍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 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북 국제 멸하역 설치 밝아'을 준안정부에 건 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동할 경우 남쪽 도라산역과 복축 게 된다. 2회 통관심사가 1회로 줄 이 신속한 통관 심사를 기대할 수 있 게 된다. 또 이용적에게 면세점, 남 북한 맛집 및 복산품 판매장 등 면의 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Z관광 상품과 연계 추진할 경우 국제령화 역은 남북 분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통합 DMZ를 '평화의 공간'으로 탈바꾼 CIQ 기능을 갖춘 국제평화역은 이 시키는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것이 라고 도는 전망했다. 도는 특히 그 동안 군사적 이유로 개발에서 소외

경의선 남북철도 역사 위치도



됐던 경기 북부에도 새로운 변화의 가능성을 열어 줄 전환점이 될 것이 라고기대했다.

이번 사업 추진은 정부의 남북철 도 현대화 사업과 한반도 신경제공 동체 구상에 선제로 대용하고, 전기 북부지역을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저지로 만든다는 이재명 지 사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 이다. 총 국장은 "난북교류 협력에 나물 국제평화역이 선설되면 현 맞춰 경기도가 평화 경제의 중심지 재 경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축으로 라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 정부와 현 판문역에서 각각 정차해 출입국심 학할 것"이라며 "한반도 신경제공 사용 받아야 하는 분백학이 사라지 동체 구상의 핵심인 남북청도 인프 라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 겠다"고 감조했다.

> 박경철경기연구왕연구기회부장 도 "남북철도에 국저얼차를 운영하 기 위해서는 유럽이나 미국-캐나다 처럼 CIQ 심사 서비스를 편리하게 런 측면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수원=문종열기자

> > y jyun@sedaily.com

경기. DMZ에 '남북 국제평화역' 설치 추진

교류 환성화 대비 세관·중인관리·전역 등 '통항 CIQ' 기능 DMZ 관광상품과 연계도…"남ੁ동평화 역사적 상징물 기대"

경기도가 정부의 남북 철도사임 - 총지선 경기도 철도국장은 이날 에 생달취 비꾸렇지다(DMZ)에가 브리핑을 갖고 "정부의 납복철도 항 남북국제행회역(평합CIO)/윤 원대회 사업과 한반도 신검제공동 설치하는 방안을 경망정부에 건의 제구성에 선체적으로 대용하고, 경 간 이동을 할 때 세권끝사, 출입국 을 위한 회목지로 만들기 위해 사업 관리, 검역을받는 중임사무소를 받 한다.

977 필요除工 時分도 戰星期中華 실제 사업 주진에는 상당한 지일이 결렇 것으로 전병된다.

윤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어어 지지만, 정부 검토 및 북한과의 협 제 각인을 찾으로 기대된다"고 덧

는기존경의선철도남속도관산의 한것이다.



했다고 11일 밝혔다. (ID는 국가 기 적부지역을 한번도 평화와 번영 과복을 환분역 사이 DMZ 내 옛장 단역 연근 지점이다. 현재 검의선 철도를 이용해 북촉으로 이동하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경우 독일 만난축도라신역과 청축 원문에게 · 남북통합CIQ 가능용交존역을 의 '네플린 장벽 태제''처럼 남북평 시두 반정자태 출입국심사를 가져 설치하면 이용과 편의가 대폭 높아...했다 역사적 상징물로 세계인들에... 야 하므로 잠시즌이 소요된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양측 중간지점에 국제됐었어를 건설하 도가 구상하는 국제범회에 위치 남쪽이 공통관리하는 병안을 구상 계획이다.

을 오기는 이용적들의 불편이가준 돌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제현됐 번에 불입국십시기 가능하기 때끈 어디기시간과 이동시간 등 불필요 조했다. 한 시간을 회기적으로 출일 수 있 다고말했다

도는 국제원회약이 설치되면 이 용격에게 면세점, 납복한 맛집, 목 산품 대한 등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주변 DM2. 관광 상품과 연제하는 병인도 주진할 계획이다. 또한 남쪽 본단과 대치를 상징하는 DMZ는 '꿰롸의 공간'으로 당바곱시킨다는

백검정 경기연구된 연구기회부

홍 국장은 "남북 정도사업이 안 전은"남북정도에국제영차용운영 로대 민간교육가 활성화되면 남북 최리년 유럽이나 미국, 케니C(처럼 COAW서面스書관리하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북 통합 CID 역이 진성되면 동일한 장소에서 한 기능을 갖춘 국제영화역은 이런 측 만에서 선택이 아닌 원수"라고 감

> 도는 국제원했다 설치 비용에 다 해선 "무재현하여 설치는이이디어 지원에서 제시하는 것이며, 구로적 인배용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분 하이 월요하다"고 밝혔다. 도는 도 반산에 건설비용이 2000년 기준약 100억원이므로현재가치로환산하 편약200억원이지만설치규모,함 용성에 따라 국제됐었으는 비용이 단증적으로에실했다.

경제된 기자 kyeongbkyungtyang.com